



CHAPTER V 조선 전기의 진주 이야기

- Story1. 축석루에 다녀간 명인들의 시
- Story2. 하륜 탄생지-태종의 '장자방'
- Story3. 우곡정-신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 Story4. 수양대군과 맞선 총장공 정분의 묘
- Story5. 조선 전기 진주의 선비
- Story6. 월명암의 보물
- Story7. 강혼-조선 최고의 로맨스

Story1. 축석루에 다녀간 명인들의 시

1. 점필재 김종직의 시

Q 김종직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A 김종직(金宗直: 1431~1492년)은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본관은 선산으로 자는 계운(季暹)이고 호는 점필재(佔畢齋)입니다. 아버지는 사예 숙자(叔滋)이고, 어머니는 밀양박씨로 사재감정(司宰監正) 홍신(弘信)의 딸입니다.

1453년(단종 1년)에 진사가 되고, 1459년(세조 5년)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1462년 승문원박사로 예문관봉고를 겸하였습니다. 이듬해 감찰이 된 뒤 경상도 병마평사·이조좌랑·수찬·함양군수 등을 거쳐 1476년 선산부사가 되었습니다. 1483년 우부승지에 올랐으며, 이어서 좌부승지·이조참판·예문관제학·병조참판·홍문관제학·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고려 말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의 학통을 이은 아버지로부터 수학, 후일 사림의 조종이 된 그는 문장·사학(史學)에도 두루 능하였으며, 절의를 중요시하여 조선시대 도학(道學)의 정맥을 이어가는 중추적 구실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문장에 뛰어나 많은 시문과 일기를 남겼으며, 특히 1486년에는 신중호(申從濩) 등과 함께 「동국여지승람」을 편차(編次)한 사실만 보더라도 문장가로서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오사화 때 많은 저술들이 소실되었으므로 그의 진정한 학문적 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후일 제자 김일손(金翹孫)이 사관으로서 사초에 수록, 무오사화의 단서가 된 그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은 중국의 고사를 인용, 의제와 단종을 비유하면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한 것으로, 깊은 역사적 식견과 절의를 중요시하는 도학자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몽주·길재 및 아버지

로부터 전수받은 도학사상은 그의 제자인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김일손·유호인(兪好仁)·남효온(南孝溫)·조위(曹偉)·이맹전(李孟專)·이종준(李宗準)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도학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김굉필이 조광조(趙光祖)와 같은 걸출한 인물을 배출시켜 그 학통을 그대로 계승시켰습니다.

점필재 김종직도 축석루에 올라 ‘축석루에서 교은의 시를 모방하다(矗石樓效郊隱)’라는 시를 남겼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누각 밝은 달 매화꽃이 필 때에
 고루명월매화시(高樓明月梅花時)
 조물주가 내 흥취 돋워 시 한 수를 내놓게 하네
 조물료아반일시(造物撩我拚一詩)
 수건 물은 청조가 비단 자리에 모이니
 함건청조집금연(銜巾靑鳥集錦筵)
 취흥에 변화함이 쇠한 걸 깨닫지 못하도다
 취흥미각변화쇠(醉興未覺繁華衰)
 광풍은 향초의 물가에 넘쳐 흐르는데
 광풍범일미무저(光風泛溢靡蕪渚)
 물가의 수양버들엔 석양 빛이 더디구려
 저변양류사양지(渚邊楊柳斜陽遲)
 난간에 기대어 구름 바다를 두루 바라보니
 난간의편망운해(欄干倚遍望雲海)
 철적 소리가 은연중에 비경사를 화답 하나니
 철적암화비경사(鐵笛暗和飛瓊詞)
 단구의 어느 곳도 이를 수가 있는지라
 단구하처의가도(丹丘何處擬可到)
 거울 속에 흰 털 드리운 게 두렵지 않다오
 경중불파상모수(鏡中不怕霜毛垂)
 하늘에 전문 올리고 손뼉 치며 웃으니
 전여천공박수소(殿與天公拍手笑)

옆 사람들 다투어 일단의 기이함이라 말하네
 방인쟁도일단기(傍人爭道一段奇)
 일찍이 바닷가 제일가는 구역이라 들었더니
 해상증문제일구(海上曾聞第一區)
 봄바람 속에 찾아와 증선루에 기대었네
 춘풍래의증선루(春風來倚仲宣樓)
 속인이 청상에 어두움을 스스로 혐의하지만
 자혐진토미청상(自嫌塵土迷淸賞)
 어찌 강산이야 승류를 저버릴 수 있으랴
 기유호산부승류(豈有湖山負勝流)
 고의고의 매화는 술을 맞아 웃는 듯하고
 고고매화영주소(故故梅花迎酒笑)
 울어대는 촉옥새는 사람을 향해 뜨누나
 (관관촉옥향인부) 關關屬玉向人浮
 동으로 흰 구름 바라보니 정위가 가까워라
 백운동망정위근(白雲東望庭闈近)
 한가히 시름하여 먼 고을에 지체할 것 없네
 불용한수체원주(不用閑愁滯遠州)



2. 퇴계 이황의 시

Q 이황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A 이황(李滉: 1501~1570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학자이며 교육자, 화가, 시인으로 다재다능한 분이었습니다. 정치가보다는 학자로서 더 명망이 깊었던 분으로 조선 명종과 선조 시대의 사상가이며 성리학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돈 1000원권 지폐 앞에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경북 안동시 예안면 온계리(溫溪里)이며 이식의 7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께서 공자가 대문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이황을 낳았다하여 대문을 성림문(聖臨門)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어 난지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윈 퇴계는 홀어미 밑에서 자라야 했고, 커서도 둘째형 이해가 을사사화로 죽고, 27세에 상처하며, 둘째 아들이 요절하는 등 슬픈 가정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황은 열두 살 때부터 숙부인 송재(松齋) 이우(李塢)에게서 학문을 배웠는데 송재 또한 시에 능한 사람으로 「관동행록」에 그의 시가 전해옵니다.

퇴계가 시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숙부의 영향이 컸습니다. 또한 송재는 진주목사를 지냈으며 퇴계의 두 형이 숙부를 따라 진주에 와서 청곡사에서 글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형이 을사사화로 목숨을 잃는 변을 당합니다. 뒤에 이황은 청곡사에 들러 시를 남겼는데 이미 앞에서 소개되었습니다.

1529년 2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시작하였으나 정쟁을 피하여 외직을 자처합니다. 풍기군수시절부터 소수서원을 육성하여 사림을 확장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퇴계는 사색과 '경(敬)'을 중시했으며, 평생 겸손함을 강조하며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1570년(70세) 세상을 떠날 때 까지 단양

산수기, 유소백산록, 계몽전의, 주자서절요, 송계원명이학통록, 인심경석의, 사단칠정분리기서 등의 저서와 무진육조소, 성학십도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가져간 그의 저서로 인하여 그의 학문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도 시대에는 기문 학파와 구마모토 학파가 있었고, 메이지 시대에는 교육 이념의 기본 정신을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1533년 3월 28일 퇴계는 곤양군수 관포어득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축석루에 올라 다음과 같이 ‘축석루(矗石樓)’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습니다.

강호에 떨어져 산 지 며칠이나 되었던고
 낙훈강호지기일(落魄江湖知幾日)
 거닐며 시를 읊다 높은 누에 올라 보네
 행음시부상고루(行吟時復上高樓)
 공중에 비끼는 비 한 때의 변화라면
 횡공비우일시변(橫空飛雨一時變)
 눈에 드는 긴 강은 만고의 흐름이라
 입안장강만고류(入眼長江萬古流)
 지난 일 아득해라 등우리의 학은 늙고
 왕사창망소학노(往事蒼茫巢鶴老)
 나그네 회포 일렁여라 들 구름이 떠 가네
 기회요탕야운부(羈懷搖蕩野雲浮)
 변화한 것 시상에 들어오지 않나니
 변화불속시인료(繁華不屬詩人料)
 한 번 웃고 말없이 푸른 물을 굽어 보네
 일소무언부벽주(一笑無言俯碧洲)

Story2. 하륜 탄생지-태종의 ‘장자방’

Q 하륜의 탄생지는 어디에 있나요?

A 하륜(河崙) 탄생지는 현재 진주성내 영남포정사 옆에 그가 태어난 곳을 알리는 태지(胎地)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에는 조선시대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태종때 영의정 부사를 지낸 문충공(文忠公) 하륜(河崙)을 비롯한 3대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묘소로 가는 길목에 허름한 집 한 채도 보이는데, 이 묘소를 지키기 위해 지은 오방재(梧坊齋)입니다.

조선 태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을 태종으로 만든 일등공신 하륜의 공적에 비하면 조선 500여 년 동안 거의 잊혀진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극 ‘용의 눈물’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륜은 진주 하씨로, 1347년 진주에서 순흥 부사를 지낸 윤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시조 시랑공 하공진(河拱辰)은 고려 현종 때 거란군이 쳐



하륜 탄생지

들어오자 거란군의 철수교섭을 자청하고 국왕의 사절로 거란 성종을 만나 군대를 철수시키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 자신은 거란으로 잡혀가 거란 왕에게 신임을 받았으나, 거란의 신하되기를 거부하고 고려의 신하로서 절의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주 지방에서는 사랑공 후손들을 ‘단목하씨’ ‘사곡하씨’ 라고도 부르는데, 11세손 시원(恃源)이 사곡(진주시 수곡면)에, 거원(巨源)이 단목(진주시 대곡면)에 살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곡에 터를 잡은 시원이 하륜의 조부이므로 하륜은 사곡 하씨인 것입니다.

Q 하륜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A 하륜 선생은 13세 때 국자감(조선시대 성균관과 같음) 시험에 합격하고, 18세 때는 문과에 급제하고 당대 명유인 이색, 이인복을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하륜이 이색의 문하에 들어가 정도전, 권근 등과 동문수학을 하게 되는데,



오방재

이들이 후일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됩니다. 41세 때 최영 장군이 요동을 공격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다 양주로 유배되었다가 위화도 회군후 풀려나서 전라도 도순찰사로 있을 때 조선의 건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자 하륜은 태조에게 발탁되고, 태조에게 발탁된 그는 정도전, 권근 등과 조선 왕조의 초석을 다지는데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됩니다. 조선 건국 후 경기좌도관찰출척사가 되어 당시 폐단이 극심해 고려 멸망의 원인이라고까지 했던 부역제도를 개편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무학대사의 건의에 따라 도읍지를 계룡산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경기 좌우도관찰사로 있던 하륜은 이 말을 듣고,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계룡산은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 서면, 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계룡산의 땅은, 산은 건방(乾方)에서 오고 물은 손방(巽方)에서 흘러 ‘물이 장생(長生)을 파(破)하여 쇠퇴(衰敗)가 곧 닥치는 땅’이므로 도읍을 건설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곧 이어 태조에게 무악(지금 서울 연희궁 근처)의 국세(局勢)가 비록 낮고 좁다 하더라도, 계림과 평양에 비하여 궁궐의 터가 실로 넓고, 더구나 나라의 중앙에 있어 조운이 통하며, 안팎으로 둘러싸인 산과 물이 또한 도읍지로 합당하다고 하면서 무악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태조는 하륜의 주장을 따라 조선의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했습니다.

Q 하륜을 태종의 장자방이라 했는데 두 사람은 어떤 사이였나요?

A 역사가들은 태조에게 정도전이 있었다면, 태종에겐 하륜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륜의 경륜은 태종을 만나고부터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태종과 하륜의 만남은 태종의 장인인 민제의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제의 집에서 태종을 처음 본 하륜은 그의 비범함에 감탄해 평생 주군으로 섬길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태조의 막내아들인 세자 방석과 방원이 왕권을 놓고 혈전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 싸움은 사실 정도전과 하륜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국 하륜의 승리로 끝난 이 싸움으로 인해 정도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반면에 이방원은 태종에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하륜은 태종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기도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돌아올 때, 태종이 교외에 나가서 친히 맞이하려 하자, 상왕께서 성난 것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아니했으니 차일을 받치는

높은 기둥을 마땅히 큰 나무로 썬야 할 것을 태종에게 말하고 열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둥으로 인해 태종이 태조의 화살을 피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뒤이어 벌어진 연회에서도 하륜의 지략으로 태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륜 묘소

우리는 국사 시간에 태종의 치적으로 의정부와 육조를 만들어 행정체계를 정비하였고, 호패법과 도첩제를 시행하였고, 신문고를 설치해 억울한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주었다는 것 등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태종 곁에 하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영의정부사를 비롯해 일생동안 4번이나 정승을 지낸 하륜은 70세의 나이가 되자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태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후진을 위해 낙향을 결심한 것입니다. 태종은 낙향하는 그를 진산부원군으로 봉하고 특별한 예우로서 환송연을 베풀었습니다. 하륜은 태종보다 6년 먼저 141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륜의 부음을 접한 태종은 매우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3일 동안 조정의 모든 업무를 보지 않았으며 7일 동안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쌀·콩 각각 50석과 종이 200 권과 예조좌랑 정인지를 보내어 애도하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륜을 태종의 ‘장자방’ 이라고 합니다. 한고조 유방에게 장량이 있었던 것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그의 뛰어난 지략과 경륜은 조선 제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찾는 사람조차 드문 시골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혀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Story3. 우곡정-신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Q 우곡정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곳인가요?

A 우곡정(隅谷亭)은 진주 사봉면 사곡리에 있으며 고려 충신 우곡 정온(隅谷 鄭溫)선생이 정자를 짓고 은거하였던 곳입니다.

Q 정온 선생은 어떤 분이셨나요?

A 우곡은 고려말 대사헌(大司憲)을 지냈으며, 진주정씨 우곡공파의 시조입니다. 대사헌은 고려시대 사헌부의 최고 관직을 말합니다. 사헌부는 오늘날 감사원과 같은 일을 보는 곳으로 현실 정무를 논평하고, 공직업무를 감사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억울함을 풀며 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 곳이었으니, 우곡은 대쪽같은 성품을 지녔음이 분명합니다.



우곡정 전경(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5호)

고려 말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켜 조선을 건국하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하여 두문동과 지리산 청학동에 은거 수양하다가 진주로 낙향하여 우곡정을 짓고 말년을 보냈습니다. 우곡은 정자 앞뜰에 못을 파고 주위에 백일홍 나무를 6그루 심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忠節)을 지켜 은둔생활을 하였는데 태조(太祖)가 사위 이제(李齊)를 이곳까지 보내어 초빙하였으나 차마 왕명(王命)을 거역치 못하여 눈을 뜬 봉사가 되었다고 거짓 핑계로 사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곡정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이성계가 우곡을 영입하기 위해 수차례 사람을 보냈으나 정은 선생은 이를 사양하였으며, 급기야는 눈뜬 봉사가 되었다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이성계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제를 진주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제가 내려와 우곡을 만나보니 우곡정 난간에 앉아 눈을 뜬 채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가 청맹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솔잎으로 눈을 찔렀더니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고 선혈(鮮血)만 낭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태조 이성계는 다시는 정은선생을 찾지 않았으며 정은 선생은 말년에 이곳에서 조용하게 세상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1393(태조 2년)에 건립했던 우곡정은 1849년에 중수하였으며 1976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전합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3량구조(三樑構造)이며, 팔(八)자와 같이 날개를 편모양의 팔작지붕으로 중앙 어칸(御間)에 대청이 있고 좌우에 방이 있는 평면입니다. 전면 뒷마루에는 닭 모양의 계자난간(鷄子欄干)으로 둘러진 누(樓)마루 형식이지만 지면에서 그리 높지 않고, 아궁이는 배면(背面)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 앞뜰에는 낚시하던 못이 거의 원형(原形)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연못 주위에 정은 선생이 심었다고 하는 6그루의 백일홍나무가 주인을 먼저 보내고, 오랜 세월 살아 온것이 부끄러운 양 몸을 비틀며 서있습니다.



Story4. 정분의 묘-수양대군과 맞선 충장공

Q 진주시 상대동에는 진주 정씨 묘소가 있다는데요?

A 진주시 상대동에 현대아파트 근처에 고려 말-조선초기의 고분 5기가 있습니다. 상대동고분군이라는 명칭으로 1997년 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묘소 주인공들의 고분군은 고려 충숙왕 때 의정부 찬성사를 지낸 정신중 내외 합분과 조선 초기 학자인 문정공 정이오 내외 분묘, 단종조 우의정을 지낸 충장공 정분 내외의 분묘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강·하·정’의 정씨 가문 사람들입니다.



충장공 정분의 묘(경상남도 기념물 제159호)

Q 진주 정씨의 역사적 인물 중에 유명한 분은 누구인가요?

A 진주(진양) 정씨 사람들은 고려 때부터 벼슬이 끊어지질 않았으며, 정신중-정이오-정분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벼슬이 혁혁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조상들의 높은 벼슬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임금만을 섬기기 위해 목숨도 초개같이 버린 인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 조상은 바로 충장공 정분입니다.

Q 충장공 정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A 충장공은 조선 비운의 왕 단종 때 우의정을 지낸 인물로 수양대군에 맞서 대항하다 노비로까지 전락하여 모질게 살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극이나 역사소설의 소재로 널리 알려진 ‘단종과 수양대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항상 수양대군, 김종서, 사육신, 생육신, 한명회, 신숙주 등이었습니다. 반면 단종을 보필하던 늙은 대신들은 김종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비쳐지면서 한명회의 칼에 의해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이 대체적인 줄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중심을 세종-문종-단종으로 계승되는 쪽에서 본다면, 이들은 만고의 충신이 됩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라고 하지요.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충신으로 명성이 드러나기보다는 오랜 기간 역적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충장공 정분은 1394년 진주 비봉산 아래 대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5-6세 때 부터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여 부친 문정공이 ‘우리 집안에 선대의 가업을 능히 이어갈 사람은 이 아이가 될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자질이 뛰어났습니다. 부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학문에 정진하여 20세 때 ‘충효’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어 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이후 정분은 벼슬길에 들어서 이조좌랑·승문원교리 등을 역임하였으며, 1422년(세종 4년)에 사간원 우헌납이 되었고, 1450년(문종 즉위년)에는 우찬성에 오르면서 전라·경상도 도체찰사가 되어 지방의 성터를 살폈습니다. 1452년 단종 즉위년에 김종서의 천거로 우의정에 올랐습니다. 당시 영의정은 황보인, 좌의정은 김종서였습니다. 이들은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하라는 문종의 유명을 받들어 정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격랑 속에서 충장공은 중앙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주로 민생과 관련된 일에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계유정란이 일어났을 때도 전라 경상도 체찰사의 직책을 맡아 백성들의 민생을 살피고 돌아오면서 충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충주에서 곧바로 낙안으로 귀양을 가게 되는데, 만약 중앙정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낙안으로 안치한 것은 그동안 충장공이 백성들을 위해 힘쓴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당시 안평대군의 책사 역할을 했던 이현로가 지방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은 낙안에서 다시 광양으로 옮겨져 관의 노비로 전락하고 1년 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공은 낙안에 있으면서 세조의 끈질긴 회유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양대군이 존경해 마지않았던 정인지가 충장공의 처남입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또는 처남인 정인지를 통해 자신을 섬길 것을 종용했을 것이지만 충장공의 지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라는 선대왕 문종의 명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충장공을 목을 매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충장공은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데 당시 상황이 이공익의 연

러실기술에 전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적소에 있을 때 증 탄선이라는 자가 같이 있었는데 하루는 읍내 사람들이 전하기를, 서울관리들이 왔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관원이 공을 잡으러 왔는데 공이 목욕하고 관대를 갖추고 조상의 신주에 재배를 한 뒤에 신주를 태웠다. 형을 집행하려 할 때 목을 얹으려 하니 공이 말하기를, 죽는 것은 마찬가지 이지만 명분은 다르다. 내가 만일 두 마음이 있다면 죽은 뒤에 맑은 하늘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상이 있을 것이다. 하고 형을 받아 죽으니 홀연히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쏟아져서 관리들이 우산을 받쳐 들고 성안으로 돌아갔다.

충장공은 죽음을 의연한 자세로 담담하게 맞이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충장공의 아내 순비는 대호군 임자번의 종으로 보내지고, 그야말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가 죽은 지 200년의 세월이 지난 1746년(영조 22년) 김중서, 황보인과 함께 관직이 복구되었으며, 1786년(정조 10년)에는 장흥의 충렬사에 배향되었고, 1791년 장릉 충신당에 배식(配食)되었습니다. 1804년(순조 4년)에 충신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정문을 세웠으며, 충장(忠莊)은 그의 시호이며 호는 애일당(愛日堂)입니다. 그의 고향인 진주 사람들은 도동서원을 세워 충장공을 비롯한 단종조 충절신인 황보인, 김중서, 김문기 등을 배향하였으나, 서원 훼철 때 없어지고 지금은 유허비만 남아있습니다. 묘소 옆에는 허름한 집 한 채가 있는데, 영모재로 이 재실을 들어서기 전 정문 위에는 ‘충신 우의정 진양정공휘정분지려’ 라는 편액이 걸려 그의 충절을 말해주고 있으나, 찾는 이가 거의 없어 쓸쓸하기만 합니다.

Story5. 조선 전기 진주의 선비

1. 선조사제문비

Q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선조사제문비’는 어떤 비석 인가요?

A 진주시 상대동에 ‘선조사제문비(宣祖賜祭文碑)’가 있습니다. 선조가 내린 제문을 돌에 새긴 비석으로 경남도 유형문화재 378호로 지정돼 있는 이 비석은 진주시 상대동 도강서당(道江書堂)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여립 옥사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죽은 수우당(守愚堂) 최영경(崔永慶: 1529~1590년)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조선 14대왕인 선조가 제문을 내리자 이 제문을 돌에 새겨 세운 비석입니다. 이 비석은 원래 1821년 덕천서원의 마당에 세웠던 것으로, 이것은 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1572년)에 대한 정조사제문비를 세우는 것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조사제문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78호)

1796년 정조는 남명 조식에 대하여 친히 제문을 내려 그 학덕을 추모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강우(江右) 지역 학자들이 1623년의 인조반정과 1728년의 무신난 이래 쇠잔해진 문풍을 크게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902년까지 덕천서원 마당



선조사제문비각

에는 남명 조식에 대한 정조사제문비와 수우당 최영경에 대한 선조사제문비가 각각 동쪽과 서쪽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남명에 대한 선조사제문비는 없어졌고, 수우당 최영경에 대한 선조사제문비는 이 도강서당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제문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력 이십 이년(1594년) 세차 갑오 십이월에 국왕이 신 예 조정랑 정홍좌를 보내어 증 사헌부 대사헌 최영경의 령에 고하여 제사를 지내노니 유영(惟靈)은 아아 슬프다 어쩔 수 없도다. 그 죄 무엇인가. 화가 그대에게 전가되었도다. 경은 아름다운 선비, 물외(物外)에 우뚝 서서 높은 풍격과 뛰어난 절개는 넉넉히 풍속을 다듬고 세상에 은둔한 지 십년에 생추(生芻) 한 묶음이로다. -중략-

이에 제문을 내려 애오라지 슬픈 정성을 펴노니 정령이 있거든 흠향하기 바라노라

수우당은 원래 서울사람이었는데 조정의 당쟁이 심한 것을 보고 47세 때 진주로 내려와 도동의 만죽산(萬竹山:지금의 선학산)기슭 한적하고 탁 트인 대나무 숲 가운데 집을 지어 '수우당(守愚堂)'이라 했습니다. 이로부터 매화와 국화를 심어놓고 흰학을 기르면서 좌우에 책을 쌓아 심성을 수양하면서 스스로 즐

겼다합니다. 수우당은 정여립 모반사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62세의 일기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으나, 1594년 억울한 누명은 벗겨지고 대사헌(大司憲)으로 추증 되었으며, 특별히 선조가 예관을 보내 제문을 내려 충절을 기렸습시다. 그 유적이 지금 도강서당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수우당은 남명(南冥) 조식(曹植) 선생의 드러난 제자로 덕천서원(德川書院)에 배향되었던 남명학파의 대표적 선비이며 『덕천사우연원록(德川師友淵源錄)』에 덕계(德溪) 오건(吳健)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재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남명 선생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지리산 근처 진주로 내려와 도동 만죽산 아래에 살다가 모함으로 기축옥사(己丑獄事)에 연루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선비입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후 1591년 정철 등 서인들의 모함이 밝혀져 신원되었으며 1594년 대사헌에 추증되었고 1603년에는 스승인 남명 선생을 모신 덕천서원에 배향되기도 했습니다.

1868년 서원 훼철령으로 덕천서원이 훼철되자 1918년 하동 옥종의 존덕사(尊德祠)에서 향례를 지냈고, 1936년에는 지역 유림들이 도강서당(道江書堂)을 건립해 지금껏 그의 학덕을 기리고 있습니다.

도강서당은 진주시 상대동 선학산 자락에 있는데 수우당이 진주로 내려와 자연을 벗 삼아 경서를 탐독하던 유서 깊은 장소에 도강서당을 건립한 것입니다.

2. 부사정-진양지 편찬 주역, 성여신의 서실

Q 부사정은 어떤 곳이며, 성여신은 어떤 분인가요?

A 부사정(浮査亭)은 금산면 가방리 659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는 부사정사(浮査精舍)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부사정사는 1600년(선조 33년)에 부사 성여신(浮査 成汝信: 1546~1632년)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선생의 호(號)를 따서 건립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성여신 선생은 임진왜란 이후 학문이 도태되는 것을 걱정하여 반구정을 지어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는데 장소가 협소해 지자 제자들이 뜻을 모아 부사정사를 짓게 되었으며, 경상우도 도학군자를 소집하여 유교 선양을 위한 강론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1785년에 반구정 외 17개 동이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의 부사정과 1동의 건물만 남게 된 것입니다.



부사정

Q 부사 성여신은 어떤 분이셨나요?

A 부사는 진주시 금산면의 선비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8세 때 조계(槽溪) 신점(申霽)에게 나아가 공부를 했는데, 신점은 신숙주(申叔舟)의 증손으로 부사의 이모부가 됩니다.

15세 때 약포(樂圃) 정탁(鄭琢)에게 상서(尙書)를 배웠으며, 18세 때에는 사친의 구암(龜巖) 이정(李禎)이 부사를 보고 나라의 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근사록(近思錄)」을 주면서 자신을 수양하는 학문에 힘쓰게 하였습니다. 23세 때 진주 관찰사가 유생 10여명을 뽑아 지리산 단속사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 중 으뜸이었다고 하며, 부모가 돌아가시고 연이어 6년을 시묘살이 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였고, 31세 때 덕천서원(德川書院) 건립을 도왔으며, 36세 때 처가가 있는 의령 가례로 이사하여 객재우 등과 교류하며 자굴산에서 학문을 연마하였습니다. 정유재란 때에는 둘째 아들과 함께 객재우가 이끄는 화왕산성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54세 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부사정과 반구정(伴鷗亭)을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고향에서 학문에 정진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황폐해진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향약을 실시하고, 예를 복구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게 되었습니다.

64세 때 가을에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가 선발을 주관하는 생원·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는데, 월사는 “집밖으로 서너 걸음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강산 천만리가 다보이네.”라고 한 부사의 글을 읽고, 노련하고 숙련된 선비로서 시속의 풍격을 본받지 않는 자라고 여겨 발탁했다고 합니다.

68세 때에는 별시 동당에 장원하여 서울에 가는 길이었는데, 객사의 관인이 부사에게 정당한 방법이 아닌 쉽게 급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자 “임금을 섬기려고 하면서 먼저 임금을 속이는 것

이 옳은가? 내가 과업을 늑도록 폐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평소의 포부를 한번 펴 보고자 한 것인데 지금 너의 말을 들으니 세도를 알겠구나. 하물며 시사가 바르지 못하고 삼강(三綱)이 장차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과거는 해서 무엇하리오.”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 후 은둔할 것을 결심하고 세상을 마칠 때까지 산수 유람을 즐거움으로 삼았는데 특히 두류산(지리산)을 유람하길 좋아 하여 ‘유두류산시(遊頭流山詩)’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71세 때 봄에는 금산면에서 여씨향약(呂氏鄉約)을 본받아 이를 약간 보완하여 금산동약(琴山洞約)을 시행하였으며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의 규범을 본받아 양몽(養蒙), 지학(志學)의 두 서재(書齋)를 세워서 고을의 후생들을 가르쳤습니다. 74세 때 「진양전성기급상락군김공시민각적비명(晉陽全城記及上洛君金公時敏卻敵碑銘)」을 지었고, 77세 때 인근 선비들과 「진양지(晉陽誌)」를 편찬하였습니다. 「진양지」는 당시의 생활과 사회·경제 활동 및 인물들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담고 있으며, 당대의 남명 문인과 학통을 살피는데 다양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명 관계 연구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임종 전날 자손들에게 “남명 선생이 임종시에 문인들에게 치상예의(治喪禮儀)를 주시고, 집안을 경계하여 안정시키셨으니, 군자가 살고 죽을 때 편안하고 한가롭기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 “내 자리를 바로 하라”하고 좌정한 채로 임종했는데 이때가 향년 87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사 성여신은 남명의 경의 정신과 구암의 애민·충절의 정신을 전수받아 이를 자신의 학문성향으로 만들었으며, 고장의 풍속을 교화시키려고 ‘동약’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진주의 역사·문화·인물 등을 총망라한 “진양지”를 편찬한 조선중기 진주의 대표적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tory6. 월명암의 보물



월명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86호)

Q 진주의 월명암에 보물로 지정된 불상이 있다면서요?

A 진주 미천면 안간리 산 200-1번지에 위치해 있는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月明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입니다. 월명암은 집현산의 정상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절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여 수풀우거진 고불고불한 비포장 산길을 따라 가다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월명암이 눈에 들어옵니다.

천혜의 자연 속에 접하나 찍어놓은 것 같은 말 그대로의 암자입니다. 산골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 그야말로 세속을 떠나 수련하기에 좋은, 조용하고 정감 넘치는 곳입니다. 월명암 인법당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12년에 수화승 현진(玄真)이 학문(學文), 명은(明隱), 의능(義能), 태훈(太訓) 4명의 조각승을 이끌고 제작한 불상입니다. 불상의 양식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아울러 17세기 전반기에 나타나는 불상양식의 편년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1686호로 지정(2010년 12월 21일)되었습니다.

복장발원문을 살펴보면, 상련대 관음보살좌상과 제작 시기와 날짜 그리고 불상 제작에 관련된 스님들의 중요 소임 등 시주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함양 상련대 관음보살좌상과 동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불상제작에 벽암각성(碧巖覺醒)이 깊이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발원문은 불상에 다시 납입되었습니다. 아미타불좌상(阿彌陀佛坐像)은 전체적으로 동시대에 조성된 상련대 관세음보살좌상보다 넓은 어깨와 당당한 신체 비례를 보입니다. 불상의 두부는 둥글고 높은 복발형으로 앞으로 살짝 숙이고 있습니다. 나발 사이에 둥근 정상계주와 반달형의 중간계주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상호는 가름한 타원형으로 이마는 넓은 편이며 반개한 두 눈은 좌우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호형을 그리며 내려오는 콧대는 콧등이 얇고 돌출되어 있으며, 작은 입술에는 미소를 짓고 있어 전반적으로 인자한 모습입니다.

넓은 어깨에 가슴은 편평하여 양감 있고, 허리는 길며 아랫배는 살짝 부풀어 있으며, 수인은 오른손을 가슴 높이로 올리고 왼손은 오른발 위에 올려 자연스럽게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습니다. 하체는 오른발을 위로 올린 결가부좌를 하고 있으며, 무릎은 낮고 넓은 편이어서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법의는 일반적인 이중 착의법으로 착용하였으며, 승각기는 가슴까지 올려 일자로 표현하였습니다.

다리를 덮은 대의자락은 형식화된 4단의 부채모양의 주름이 길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현은 동시 조성된 상련대 관세음보살좌상과 유사합니다. 월명암 아미타불좌상은 현재 남아있는 현진이 만든 불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입니다. 얼굴의 형태는 동시 조성된 상련대 관세음보살좌상보다 2년 후에 제작된 천은사 관음, 대세지보살좌상과 더욱 유사합니다. 이후에 1626년 제작한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과 법주사 소조삼신불좌상은 얼굴이 크고 신체가 당당해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주 월명암

Story7. 강혼-조선 최고의 로맨스

Q 진주에 조선 최고의 로맨스가 전해 온다는데?

A 옛날 기녀와 선비들의 ‘로맨스’는 교방의 또 다른 멋이자 풍류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선비들과 기녀와의 ‘로맨스’를 풍류로 보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기녀 치마폭에 시 한 수’라는 이야기 때문일 것입니다. 풍류객들이 한껏 흥을 돋워 기녀의 치마폭에 시 한수 또는 그림 한 폭 그려주는 일화는 근세까지 전해옵니다. 옛날 경상우도의 중심지였던 진주 지방에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선비와 기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성면 중촌리 동산부락 배망골에 조선 최고의 로맨스의 주인공, 강혼의 묘가 있습니다.

목계 강혼(木溪 姜渾: 1464~1519년)은 젊은 시절 한때 아리따운 관기와 깊은 사랑을 불태운 일이 있습니다. 강혼이 기녀와의 사랑에 빠져 있을 무렵 공교롭게도 진주 목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새로 온 목사가 기녀들을 일일이 점고하는데 강혼의 연인이 목사의 눈에 들어 수청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혼은 사랑하는



강혼의 묘

기녀를 속절없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관기였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강혼은 북받쳐 오르는 분함과 연정을 주체할 수 없어 수청을 들러 가는 기녀의 소맷자락을 부여잡고 한 수의 시를 소매에 써주었습니다. 강혼의 행동에 놀란 기녀는 저 고리를 갈아입을 생각마저 잊어버리고 엉겁결에 신관 목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쫓기 듯 들어서는 기녀의 소맷자락에 쓰인 시를 발견한 목사는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시의 작자가 누구냐고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기녀는 밝히지 않을 수 없었고 급기야는 잡아들이라는 호통이 떨어져 강혼이 붙들려 왔습니다. 수청 기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전들은 큰 변이 일어났다며 몸 둘 바를 몰라 하는데, 사또는 뜻밖이었습니다. 주안상을 준비케 하고 백면서생 강 혼을 따뜻하게 맞아들이었습니다. 사또는 기생의 소맷자락에 쓰인 시를 보고 그의 글재주와 호기에 마음이 끌려 한 잔 술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청을 들 뻔한 기생도 되돌려 주고자 작정한 것입니다.

로맨스까지는 잘 상상이 안되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선비와 기녀의 사랑이야기’입니다. 진주 관기를 사랑한 강혼은 어떤 인물일까. 그리고 이 지역 많은 선비들이 기녀와의 로맨스(?)를 남겼을 법한데, 유독 강혼의 이야기만 전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하는 생각으로 옛 문헌을 찾았습니다. 우선 강혼의 문집인 ‘목계일고(木溪逸藁)’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 문집은 강혼의 매제(妹弟)인 관포 어득강이 편집한 원고가 유실된 후, 후손인 필수, 태수 등이 다시 수집해 1910년 진주 원당 유인재(惟人齋)에서 간행한 활자본입니다.

먼저 강혼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 강혼은 1460년 진주 월아산 아래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사호(士浩), 호는 목계(木溪)입니다. 김종직의 문인으로 1483년(성종 14년)

에 생원시에 장원을 하고, 성종 17년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홍문관 춘추관 등에서 벼슬을 했으며, 1498년(연산군 4년)에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인이라 하여 유배되었다가 얼마 뒤 풀려나 문장과 시로써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도승지가 되었습니다. 영의정 유순(柳洵)의 주선으로 반정(反正)에 참여하게 되어 그 공으로 병충분의정국공신(秉忠奮義靖國功臣) 3등에 진천군(晋川君)으로 봉해진 뒤, 좌승지를 거쳐 대제학, 공조판서가 되었고, 1512년(중종 7년)에 한성부 판윤이 되었으며, 뒤이어 우찬성 판충추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시문에 뛰어나 김일손(金駟孫)에 버금갈 정도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고 시호는 문간(文簡)입니다.

진주사람 강혼은 시문에 능통했으며 대제학까지 지낸 학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학까지 지낸 학자인 강혼에게 ‘기생과의 로맨스’라는 이야기가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야기의 근원 역시 그의 문집에 있습니다. 우선 후손이 쓴 가장(家狀)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목사가 진주에 부임을 해서 좋아하는 기생에게 수청을 들라 하니 장난삼아 시 한편을 기생의 옷에 써주었다. 목사가 보고 크게 놀라 실용적인 학문을 권하였다.’라는 글입니다. 강혼이 이때 기생의 소매에 써준 시 역시 ‘증주기(贈州妓)’라는 제목으로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목사는 삼군을 통솔하는 장군 같은데
 고아대독삼군수(高牙大纛三軍帥)
 나는 한낱 글 읽는 선비에 불과하네
 황권청등일포의(黃卷靑燈一布衣)
 마음 속에는 좋고 싫음이 분명할텐데
 방촌분명경위재(方寸分明涇渭在)
 몸 단장은 진정 누구를 위해 할까
 부지단분위수시(不知丹粉爲誰施)

강혼은 사랑하는 기녀가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좋아하지만은 목사의 권세에 못 이겨 억지로 수청 들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편의 시를 기생의 소매에 써 준 것입니다.

이 시는 ‘진양지에 이르기를, 판서 강혼이 젊은 시절 관기를 좋아했는데 방백이 부임하여 수청을 들게 하니 공이 시 한 수를 지어 기생의 소매에 써주었다. 방백이 보고 누가 지었는지 물었다. 기녀가 공이 지었다고 대답하자, 불러 보고 크게 칭찬하고 과거공부를 권하였으며, 마침내 문장으로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주(註)를 달아놓았습니다.

강혼은 풍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문집에 ‘성주기생 은대선(銀臺仙)’에게 써 준 시 2수도 함께 전합니다
다음은 어숙권(魚叔權)의 폐관잡기(稗官雜記)에 실려 전하는 내용입니다. 목계 강혼이 일찍이 영남에 가서 성산 기생 은대선을 사랑했습니다. 돌아올 때 부산역까지 말을 태워가지고 왔는데 이미 침구를 가지고 먼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공은 기생과 이별도 없이 역사에서 하룻밤을 자고 시를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선녀같은 저 모습 옥같이 흰살결에
 고사선인 옥설자 (姑射仙人玉雪姿)
 새벽창문 열고 거울 앞에 눈썹그리네
 효창금경화아미 (曉窓金鏡畫蛾眉)
 묘주에 거나하게 취하니 얼굴 붉어져
 묘주반감홍입면 (卯酒半酣紅入面)
 동풍이 살짝 스치니 검은 머리 흘날리네
 동풍취빈록참치 (東風吹鬢綠參差)

이후 강혼은 상주에 이르러 사랑하는 은대선과 헤어졌고 강혼은 조령을 넘어 잠시 쉬다가 도성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성주 서생을 만났습니다. 강혼이 서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니 은대선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고 바로 필묵을 들었습니다. ‘상산에서 헤어진 뒤 저물어 두메마을에 이르렀는데, 텅 비어 있는 객관이 쓸쓸도 한데,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처량도 하다. 등잔불을 돋우어 홀로 앉아 있으니 외로운 그림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이때의 정과 회포는 서글퍼서 말할 수가 없구나. 내일 아침 재를 넘으면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산새가 구슬피 지저귄 것이니 이 간장이 녹는것만 같다.’ 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서생편으로 은대선에게 전했다합니다.

은대선은 강혼 시와 편지를 가지고 병풍을 만들었는데 자획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용과 뱀이 움직이는 것 같았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선비로서 성주를 지나가는 이들은 그 병풍을 구경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송계 권응인(權應仁)은 강혼이 세상을 떠난 후 훗날 은대선을 한번 만났는데 그때 은대선은 이미 여든이 넘었다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검은 머리 흘날리다가 이제는 흰머리 흘날리네로 변했습니다.”고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강혼이 자기에게 써준 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강혼은 지금 진주에 잠들어 있습니다. 호방한 기질과 시문에 능한 그였기에 기녀와의 로맨스 등 많은 이야기가 전합니다. 강혼뿐만 아니라 많은 선비와 기녀와의 로맨스는 문학 작품으로도 남아 전하고 있는데 바로 교방의 풍류와 멋이라 할 수 있습니다.



